

2 뉴스

식물·환경-한방생명 학과 통합 논의 시작

서나은 기자 merlo@khu.ac.kr

【국제】생명과학대학(생대)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와 한방생명공학과 통합 관련 학제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학과 통합에 그치지 않고 첨단학과로의 개편이 목표다.

생대 학과 통합 관련 학제 개편 논의는 지난 2016년 프라임 사업 때 시작됐다. 프라임 사업은 교육부 주관의 대학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사업이다. 이후 올해 초 생대 학과 개편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통합에 관한 두 과의 최종 합의는 지난 3일, 교수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사업은 학과 통합에 그치지

않고 첨단학과로의 개편에 의미가 있다. 정원 내 학과 신설 및 통폐합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하지만 정원이 변경되면 교육부 승인이 필요하다. 개편될 첨단학과 정원은 현재 두 학과를 합친 54명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전략기획팀 김동준 팀장은 “교육부 승인이 오는 2월에서 3월에 나올 예정인데, 그 이후 학칙 개정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며 “2025년 통합을 목표로 2024년 3월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목(식물·환경신소재공학) 학과장은 “학과 통합은 미래 첨단 바이오산업 선도를 위한 핵심 인재

양성이 주목적이다”고 말했다.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는 지속 가능한 바이오매스로 식물생명공학, 소재공학, 나노/에너지 기술을 융합하여 바이오소재를 개발하는 그린 분야와 화이트 분야의 융복합학과다. 한방생명공학과는 첨단 생명과학을 활용하여 천연물 소재의 효능을 연구하며, 신약 및 기능성 식품,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는 레드 바이오 학과다. 유 학과장은 “두 학과를 기반으로 하는 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과는 그린, 화이트, 레드, 바이오 분야를 융합적으로 다루며 졸업생의 사회 경쟁력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그린, 화이트, 레드 바이오 분야의 세부 전공 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 계획은 대학본부의 최종 결정 이후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학과 통합을 위해서는 학칙



생명과학대학 건물 (사진=서나은 기자)

개정이 필요하다. 심의위원회와 감사 절차 이후,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회에 안건이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학칙을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학생 의견 반영은 필수 절차는 아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공지를 권고하고 있다.

학생에게는 지난 6일, 각 과의 학생회장을 통해 처음 공지됐다. 2025년부터 통합 학과로 운영될 예정이라는 사실과 핵심 커리큘럼, 통합 의의, 추후 설명회 일정 등이 담겼

다. 지난 17일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 통합 설명회가 각 과 차원에서 진행됐다. 배효철(한방생명공학) 학과장은 “과도기에 놓인 학생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교수진이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학과와 학생 모두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학과 통합에 서은주(식물·환경신소재공학 2023) 씨는 “전공이 다른 두 학과가 합쳐져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 넓어지는 것은 장점”이라며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학제 개편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장준하(한방생명공학 2020) 씨는 “졸업요건이나 교육과정이 바뀌어 나중에 졸업하는 데 지장만 안 주면 좋겠다”며 “바뀐 졸업요건은 저학번이나 당해 신입생부터 적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류값 인상 양 캠퍼스 상권은?

김권수 기자 okb8888@khu.ac.kr
배연우 기자 yeonwoo.bae22@khu.ac.kr

지난 9일 참이슬-테라 등 하이트진로 일부 주류 출고가 인상에 이어 (주)대선주조의 출고가 또한 인상되며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졌다. 이는 우리학교 양 캠퍼스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회기동에 위치한 서울캠퍼스 인근 술집 20곳의 주류 물가를 조사한 결과 소주 평균 가격은 4,825원, 맥주 평균 가격은 4,875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근 1년 내 가격을 인상한 식당은 8곳이었다. 다만 대학가라는 특성상 청담, 압구정, 강남, 여의도 등 직장인이 많이 모이는 상권에서 소주가 병당 6,000원에 판매되는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주류 가격 인상 계획이 있는 곳은 6곳, 가격 변동 상황을 보고 가격 인상을 고민 중인 곳은 3곳으로 주류 업체들의 출고가 인상으로 식당 9곳이 판매가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회기동에서 맥줏집을 운영 중인 A 씨는 “이번 달 초 연이어 주류 물가가 인상돼 이에 맞게 주류 가



주류 물가 인상에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졌지만, 가격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배연우 기자)

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곳의 소주, 맥주 가격은 각 5,0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되면 회기동 주류 평균가에 비해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류 물가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인상을 원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회기동에서 한 포차를 운영 중인 B 씨는 “주류 업체의 출고 가격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학생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면 식당이 힘들어도 선뜻 가격을 올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계속해서 주류 물가가 잡히지 않고 인근 식당이 가격을 올린다면 인상이 불가피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유지하려 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캠퍼스(국제캠) 인근, ‘마을’로 불리는 상권은 소주 값이 4,500원에 형성돼있다. 정문 건너편 상권과 영통 중심상가 상권은 주로 5~6,000원대에 형성돼 있다.

국제캠 마을, 정문 건너편, 영통 중심상가를 포함한 국제캠 근처 가게 20곳 중 1년 내 소주 가격을 인상한 곳은 단 2곳이었다. 이외에 가격 인상 계획이 있는 가게는 1곳, 가격 변동 상황을 보고 가격 인상을 고민하는 가게는 3곳, 가격 인상을 고민하지 않는 곳은 16곳이었다. 주 소비층이 학생이기 때문에 쉽게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는 의견과 현재 식당별로 가격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인상은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제캠 마을에서 23년째 한 술집을 운영하는 C 씨는 “올해는 코로나 시기보다 장사가 안 되는 것 같다”며 “학생이 더 안 올까 봐 가격 인상은 고민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또한 국제캠 정문 건너편에서 한 고깃집을 운영 중인 D 씨 역시 어려움을 토로했다. D 씨는 “오랜 기간 소주 값을 4,000원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승하는 물가에도 비교적 저렴한 주류 값을 유지하려면 손님이 많이 와야 하는데 최근 들어 정문 건너편 상권도 장사가 안 된다”며 “주류 값이 계속 오른다면 인상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빈대 발생 ‘0건’

이서영 기자 ellalike1234@khu.ac.kr

최근 전국적으로 빈대 출현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학교에 접수된 빈대 의심 발생 신고는 아직 없지만, 대학가에 조성된 불안감은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 14일, 천안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빈대 사체가 발견됐고 대구에서도 지난달 한 대학교 기숙사에 빈대가 출몰했다. 빈대 의심 발생 신고가 접수된 대학은 기숙사 전체를 방역하고 있다.

교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세화원에 유럽계 유학생이 많은데 빈대 랜참나”, “도서관에서 나온 후 물린 자국 너댓 방이 생겼다” 등의 게시물이 실렸다. 지난 21일 기준 서울캠퍼스(서울캠) 행복기숙사와 세화원, 국제캠퍼스(국제캠) 제2기숙사와 우정원, 양 캠퍼스 중앙도서관 조사 결과, 우리학교에 접수된 빈대 의심 발생 신고는 0건이다.

국제캠 제2기숙사 측은 “기숙사 시설 방역을 진행했다”며 “기숙사 생충별 단체 대화방에 빈대 발견 방법 등을 공지했고 조금이라도 의심 사항이 발견되면 사감실 측으로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공지했다”고 전했다.